

# 제11회 서울미래연극제 심사총평

한 달여간 진행되었던 제11회 서울미래연극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공식참가작 다섯 단체는 서류심사와 실연심사, 그리고 강연과 토의의 장이었던 ‘미래 네트워킹’ 등 한편의 완성도 있는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매 순간순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실제 무대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다섯 편의 공식참가작이 제출한 문제의식과 이를 표현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무대,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 등으로 서울미래연극제는 대한민국 신진 연출가들의 기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다섯 편의 공식참가작을 통해 폭력·권력의 구조 등과 같은 대한민국 현주소와 그 민낯, 근미래의 삶의 방향성, 코로나19 시대의 연극의 역할과 이를 마주한 우리의 현재 등을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객들은 전통의 현대화 및 소설의 연극화 작업, 연극적으로 확장시킨 영상 활용, 최대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최소의 무대 운용, 여러 오브제와 결합한 배우들의 치열한 신체 미학, 관객들의 참여와 그 과정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극장 활용 등 다채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섯 편의 작품을 관극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는 작품의 완성도, 연출의 창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작품을 통해 느꼈던 관극의 즐거움으로 인해 심사 과정은 그만큼 매우 힘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열정과는 별도로 다섯 작품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작품의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우열을 가르기 힘든 작품을 한 편 한 편 논의의 중심에 두고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은 열띤 토론과 장고 끝에 각 분야별 수상작 및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미래연극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 편의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에는 제작

주체로서 여전히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모두가 함께하여 좋은 결실을 내어 주었다는 점에서 서울미래연극제와 참가한 모든 연극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예술감독(심사위원장) 정범철  
심사위원 우수진 이은진 이주영 황태선  
(이상 가나다 순)